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 www.103skcc.org

연중 제29주일(묵주기도 성월)
제30권 47호(다해) 2010·10·17

[묵상]

예수님과 시몬의 장모
<채색삽화, 11세기, 갠드스 도서관, 다름슈타트, 독일>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십니다.
끊임없이 부르짖는데 누가 외면할 수 있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라 해도 끊임없이 졸라대면
귀찮아서라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는데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의 부르짖음에
어찌 주님께서 올바른 판결을 미루시겠느냐!

그러나 끊임없이 청하라고 하시지만
그 청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겠다고만 하십니다.
하느님 판단의 기준은 올바름입니다.
하느님의 답을 기다린다면
먼저 내 안에 올바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아무리 귀찮으셔도
올바름을 거스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떼쓰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 즉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뜻을 바꾸실 때까지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변화될 때까지
올바름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청하는 것임을…….

-桓- martinlee0501@hanmail.net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아 침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오전	8:30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후	7:00
주 일	아 침 미 사	오전	7:30
	학생미사(영어)	오전	9:30
	낮 미사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10:00
	레지오 마리애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오전 9:30
	성 시 간 (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레지오 마리애	오전 10:00
	성령 기도회	오후 8: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M.E. Sharing(3째주)	오후 7:00
	울뜨레아 (4째주)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례 (짝수달 4번째 토요일)	오후 6:00
	배른 청년모임	오후 8: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애	오전 중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2:30
	3째주 - • 빈첸시오회	오전 9:00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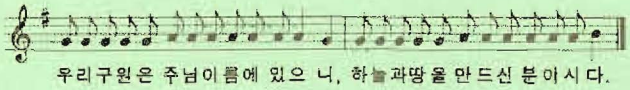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최준식, 박덕기 카타리나
	(생) 이명수 가브리엘
주 일 낮미사	(연)이은원 야고보, 김인영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한병열 토마스, 서인수 요셉, 김시형 시릴로, 이상현 베드로, 정선결 모니카, 엄은섭 도로테오,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김몽들 요셉
	(생)오창에 안나, 홍석인 체칠리아, 김용경 리디아, 박종열 토마스 아퀴나스 가정, 박미진 유스티나+ 박효진 안젤라, 박지상 아우구스틴, 배태임 안나, 이영석 크리스토퍼, 권오상 바오로+ 권순길 체칠리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17,8-13

화답송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눈을 들어 산을 보노라. 나의 구원 어디서 오리오? 나의 구원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 그분은 너의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리라. 잠들지도 않으시리라. ◎

○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너의 오른쪽에 계신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

○ 주님은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신다. 그분은 너의 목숨 지켜 주신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은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2 Timothy) 3,14-4,2

복 음 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내네.⊙

복 음 루카(Luke) 18,1-8

영성체송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목숨을 구하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시네.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90	239
봉헌	258	267
성체	Heart of Worship	282
파견	실로암	326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

▶신성 불가침한 인간 생명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덕 규범 앞에서는 "그 어떤 특권이나 예외가 있을 수 없게 된다. 제아무리 세계적인 인물이거나 '가난한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거나 전혀 다름이 없다. 윤리적 요구 앞에서 우리는 모두 절대적으로 평등하다.

▶가증할 죄악인 낙태

58). 생명에 대해 저질러질 수 있는 모든 범죄 가운데 고의적 낙태는 특히 심각하고 통탄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유아 살해와 함께 낙태를 "가증할 죄악"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 이에 대한 감지 능력이 점차로 흐려지고 있다. 대중들의 마음 안에서, 행동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법 안에서조차 낙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인 판단력이 지극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 주는 징표이다. 이 도덕적인 판단력은, 심지어 생명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조차 점점 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진리를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하며, 편리한 타협이나 자기 기만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사물을 그 사물의 고유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예언자의 꾸짖음은 지극히 직선적이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나쁜 것을 좋다, 좋은 것을 나쁘다, 어둠을 빛이라, 빛을 어둠이라 하는 자들아!"(이사 5,20). 특히 낙태의 경우에는 "임신 중절"과 같은 모호한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낙태의 참된 본질을 은폐하며, 여론 안에서 그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이러한 언어 현상 자체가 바로 양심의 불편을 느끼는 증상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어떠한 말도 사물의 실재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고의적 낙태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든지, 수태에서 출생에 이르는 인간 존재의 출발 단계에서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이다.

우리가 살인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본다면 고의적 낙태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인 심각성의 진정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다. 낙태로 제거되는 것은 초기 단계의 인간이다. 이 인간보다 더 절대적으로 무고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다. 이 인간을 결코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불의한 범죄자라고는 더더욱 생각할 수 없다! 그는 약하며, 방어능력이 없고, 심지어 신생아의 울음과 눈물이 지닌 가슴을 에이는 힘을 가진 최소 형태의 방어수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태아는 그 아기를 태중에 담고 있는 여인의 보호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계속)

주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신앙인

로마에서 한창 시험공부를 하고 있던 때, 가끔 음식을 보내준 어느 자매님의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 미사 때 기도를 하느님께 올렸습니다. 빨리 쾌차하시어, 가정과 교회에 봉사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나중에 들었는데 한국에서 본당 신자들이 구역별로 반에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은 구역장으로 열심히 본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용기를 내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형제님이 있던 곳이 암 병동 이었기에 제 편지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용기가 되었는지 복사해서 바로 옆에 있는 환자도 읽어보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끊임없는 기도와 저의 바람이 보태어져서 그 형제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루카 18,5)라고 복음에 등장하는 과부처럼 끊임없이 주님께 조르면, 무엇이든 들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 체험을 강하게 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하느님께 돌아선 사람, 즉 회개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부와 같은 회개한 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고, 그분의 의지대로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현실의 힘겨움도 좋지 않은 일도하느님께서 다른 의도로 섭리하시는 것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반드시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하느님께 원망하고, 심지어는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을 귀찮게 한다고 우리 입맛에 맞게 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밤낮으로 재판관에게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청하는 과부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청하는지 신앙생활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청하는 시간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시간을 따져볼 때, 밤낮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설사 당신의 뜻이 다르더라도 아버지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하느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나의 것보다 하느님 것을 실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인 신앙인들은 하느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고, 밤낮으로 청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밤낮으로 청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소연도 들으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삶을 보살피십니다.
과부처럼 그토록 귀찮게 하는 사람의소원 들어주시지 않는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 양해룡 사도요한 신부 /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피카엘라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야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황지영 안젤라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이진향 아녜스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이희경 크리스티나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10월 묵주기도 성월

10월은 전교의 달 입니다.

"말씀을 선포 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2티모 4. 2)

◈ 백삼위 본당 설립 30주년 준비모임
- 일시 : 10월17일(주일) 오후1시
- 장소 : 사제집무실

◈ 안나/요셉회 가을 온천 관광
- 일시, 장소 : 10월19일(화),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출발 :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 대상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55명 선착순)
- 회비 : 교우 $20, 외부인 $30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샌들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 총무 ☎(310)738-4387

◈ 서예반 제2기 회원을 초대합니다.
- 시간 : 매주 주일미사 후 2층 유아실에서 습작
- 강사 : 일호 박태홍 선생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주일학교 (Lock-In)
1. 목적: 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성숙 및 친교를 위함.
2. 대상: 고등부 (9~12학년)
3. 일시: 10월 29일(금) 오후 6시~10월30일(토) 오전 9시 까지
4. 신청: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신청서 앞뒤에 부모님 서명 꼭 필요합니다.)
5. 등록비: 무료 (마감: 10월 24일)
6. 준비물: 묵주, 슬리핑백, 베개, 세면도구
7. 장소: 백삼위 성당

◈ 백삼위 작은 음악회

풍성한 가을을 맞아 백삼위 가족 모두와 함께 하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녀들의 다재다능함, 그리고 프로들의 수준 높은 클래식 감상 추억이 깃든 낭만의 밴드와 함께 운치 있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 하시기 바랍니다.
(악기에서 나오는 감미로운 소리는 모든 분들을 분명 매료시킬 것입니다.)

◆ 일시 : 10월 24일 (주일) 오후 4시~8시 30분

◆ 내용
- 1부(장소: 성전)
  2중창(혼성), 관악 3중주(클라리넷, 오보에, 플룻), 현악 2중주(바이올린, 첼로), 관악 2중주(트럼본, 트럼펫) 피아노 독주, 글로리아 성가대 합창, 관현 2중주와 독창(첼로, 바이올린), 독창(소프라노) 독창(테너),글로리아 성가대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 저녁식사 (친교장, 무료제공)
- 2부(장소: 친교장)
  01.시작 연주(백삼위 밴드)
  02.구역별 노래-6개구역 및 찬조출연 (신부님,수녀님,총회장님등)
  03. 다함께 노래 부르기
  04. 시상식
- 문의: 김 용 스테파노 ☎(310)926-2248
  김정화 소화 데레사 ☎(310)597-2729

◈ 남가주 여성 제32차 영어 꾸르실료 신청받습니다.
- 일시 : 11월18일(목)~21(주일)
- 장소 : 포모나 꾸르실료 하우스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울뜨레아 간사 ☎(310)749-0276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17일(주일) : P.V. 3 반 (잔치국수 $3)
- 10월24일(주일) : 토런스 동1반 (카레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순복 김대우 김상규 김성일 김완태 김원모 김원호 남명자 남성철 문충환 민기남 민소예 민찬기 박완철 박음전 석순영 안민수 엄혜은 우영희 원건희 유태현 윤희동 윤석구 이명자 이민상 이영희 이일길 이태옥 이효세 장연진 정규숙 정명모 정훈모 주용범 지경수 최의수 최이원 최태훈 한영만 임순 한길선례 **합계 : $3,620**
성전헌금	강숙경 강순복 김대우 김성일 김원모 김원호 남명자 남성철 문충환 민기남 민소예 민찬기 박완철 석순영 안민수 엄혜은 원건희 이명자 이영희 이민상 이태옥 이효세 임순 정규숙 정훈모 주용범 지경수 최의수 최이원 최태훈 한영만 한길선례 **합계 : $2,740**
미사헌금 : $2,812	
감사헌금 :	

공지사항

◈ **티켓판매 (FIAT 재단 '유진 박 콘서트')**

이번 주일에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FIAT 재단 '유진 박 콘서트' 에 백삼위 신자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티켓 구입 바랍니다.

◈ **소년 소녀 레지오 단원 모집**

- 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들
-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하여 본인의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신앙활동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최기남 야고보 꾸리아 단장 ☎(310)569-3940

◈ **본당 비품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주일학교/한국학교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교실의 책상과 의자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주시고, 교실 사용 후 책상은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수업시간 : 주일 오전 10시30분~11시45분
* 한국학교 수업시간 : 주일 낮 12시~오후 3시

남가주 소식

◈ **성 마태오 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현유복 신부님 작품전**

- 일시 : 10월22일(금)~28(목)
- 개막 리셉션 : 22일 오후 6시~9시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윌셔불러바드 #502, LA)
- 문의 : 성 마태오 성당 사무실 ☎(818)951-0879

◈ **FIAT 재단 '유진 박 콘서트'개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콘서트가 피아트 재단 주최로 개최됩니다. 북미주 젊은 가톨릭 리더들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이번 콘서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월28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
  (412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티켓가격 : $35(18세이상 성인), $25(18세미만 학생)
- 구입 : 웹사이트 www.fiat.org
- 문의전화 : (714)702-9830, e-mail concert@fiat.org

◈ **위령의 날 합동 미사**

- 일시 11월13일(토) 1시 30분- 합동 연도, 2시- 미사
- 장소 : Holy Cross Cemetery
- 개최: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회장단 모임	

다음 주 단체 모임

10월 사목상임위	오후 1시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남명자 데레사 920-5153 10/8/(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박선화 안나 530-7702 10/9(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10/15(금) 오후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김주량 요한 989-0366 10/8(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정알베르또 791-1374 10/2(토) 오후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0/12(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최경숙 수산나 433-9075 10/15(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박광자 소화데레사 972-9193 10/8(금) 오전 10시30분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10/16(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10/9(토) 오후 7시 강당
	3	대건회 : 거주지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흥룡 요셉 808- 5005 10/9(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정훈모 바오로 377-1271 10/8(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이건영 프란치스코 377-5632 10/8(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송준규 미카엘 796-6763 10/8(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도영옥 수산나 541-0767 10/12(화) 오전 10시30분

2010년 전교주일 담화문 (上)

교회의 친교는 선교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교 주일을 거행하는 10월은 교구와 본당 공동체, 봉헌생활회, 교회 운동 단체,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복음 선포 노력을 새롭게 하고 사목 활동에 더 넓은 선교 전망을 부여하는 때입니다. 이 연례 행사에서 우리는 전례, 교리교육, 봉사, 문화 활동에 더욱 힘을 쏟도록 초대 받습니다. 이 활동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성찬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어 당신 현존의 선물을 맛보고 당신의 학교에서 배우며 우리의 스승과 주님이신 당신과 더욱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요한 14,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하느님 사랑의 체험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또 우리 서로 친교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 형제자매에게 우리가 지닌 희망(1베드 3,15)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하느님 말씀의 묵상과 신앙의 진리 탐구를 통하여 길러진 자녀다운 태도로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의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인본주의 촉진의 전제 조건입니다. 또한 10월에는 많은 나라에서 여름 휴식 이후 교회의 여러 활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교회는 묵주 기도를 통하여 성모님에게서 배우고,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을 묵상하고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성모님을 사랑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 또한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또한 아드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임을 깨닫도록 촉구하십니다.

성자께서는 불화와 죄로 갈라진 인류를 위한 구원의 선물이시며 하느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요한, 3,16).

요한 복음에는 파스카 축제 때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온 그리스인들 가운데 필립보 사도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요한 12,21)라고 청한 이들이 나옵니다. 10월이 되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청으로 가득 찹니다. 이달 10월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투신해야 할 과업을 일깨워 줍니다. 곧, 복음 선포는 온 교회의 의무입니다.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선교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 [Ad gentes] , 2항) 교회입니다. 이달은 또한 복음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새로운 삶의 투사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점증하는 외로움과 무관심의 혼란 양상을 경험하는 다인종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이상을 키우면서 희망의 표징을 제시하여야 하고 모든 이의 형제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이 지구를 모든 민족들이 거짓 환상이나 헛된 공포를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집으로 만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2000년 전의 그리스인 순례자들처럼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해 주고 '예수님을 보여 줄' 것을, 곧 새천년을 맞이한 세대, 특히 복음 선포의 특별 대상인 온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구세주의 모습을 환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그분 안에서 자기 삶의 의미와 진리를 발견했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은 세례를 받은 모든 이와 전체 교회의 선교 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 사명은 개인과 공동체와 목자의 깊은 회개 없이는 완수될 수 없습니다. 사실 복음 선포의 사명 의식은 모든 신자뿐 아니라 모든 교구와 본당 공동체가 교회들의 온전한 쇄신과 선교 협력에 더욱 열심히 참여할 용기를 내어 모든 인간, 민족, 문화, 인종, 국가의 중심에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촉진합니다. 그러한 의식은 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 봉헌 생활자들, 교리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이 교회의 친교를 촉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길러지며, 복음이 자유와 진보의 누룩이 되고 형제애와 겸손과 평화의 원천이 되는(선교 교령, 8항 참조) 일치의 모델에 "다문화성"의 현상도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습니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고 도구입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Lumen gentium] , 1항).

◆바티칸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계속>